

## 제 4 장

### 양심 경륜

지난 장에서 우리는 사람의 타락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아담에게 매우 단순한 명령을 주셨고 아담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로마서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경륜은 보통 ‘양심 경륜’이라 불립니다. 이 경륜은 앞선 경륜처럼 사람이 무죄한 상태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창6:8). 양심 경륜은 아담의 타락에서 홍수 때까지 이어집니다.

#### 1.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아담이 먹지 말라고 명령받은 나무의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창 2:17).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이브를 유혹하려고 접근했습니다. 사탄이 노린 것은 이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무언가 빠뜨린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마귀는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먹는 날엔 세 가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1) 너희 눈이 열리고 (2)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3)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마귀는 아담과 이브가 그 열매를 먹음으로 무언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들에게 심어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 생기는 손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창2:17). 유혹은 쥐뿔이나 낚시 바늘과 같습니다. 쥐뿔에 있는 미끼나 낚시 바늘 끝에 달려 있는 벌레는 쥐와 물고기에게는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쥐와 물고기는 이제 곧 무언가 얻겠구나 생각하지만 실은 실패하고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브는 뱀에 걸렸고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열매를 따먹기 전과 후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리매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창2:25와 비교).

굳이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이 죄를 지었음을 말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즉시 무언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창 3:7)! 그들 스스로 선이 아닌 악을 행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지었음을 안 아담과 이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죄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돌이키기엔 때가 너무 늦어 버렸습니다. 과거의 행복과 현재의 비참함이 교차했습니다. 스스로 놓쳐버린 선과 저질러 놓은 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경험하신 적이 없지만 악에 대해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악을 알게 된 것은 경험을 통해서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은 악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뜨거운 난로를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는 어느 날 난로를 만지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난로란 것이 만지지 않으면 따뜻하고 좋은 것이지만 만지면 위험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져 보고 고통을 경험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은 후에야 비로소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창3:22).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고도.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 A. 양심이란 무엇인가?

아담과 이브의 경우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자각이나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삶 속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가 그것을 깨닫고 고쳐나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 그가 잘못을 알고 죄책감을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여전히 즐겁다면 그는 완전히 구제불능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체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알려주는 장치를 우리 몸 안에 두셨습니다. 이 장치를 우리는 '신경'이라고 합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다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신경이 사람에게 해롭습니까? 이롭습니까? 물론 누구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신경을 주셨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뜨거운 난로에 손을 갖다 대었는데 아무런 고통이 없고 난로가 뜨겁다는 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손은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런 경우는 없는데 이는 우리의 몸의 신경이 작용을 하여 급히 뇌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아야, 빨리 난로에서 손 치워! 아프단 말이야!" 또 만일 신경이 없다면 혀를 껌처럼 씹어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니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혀를 한 번 정도 깨물 수 있지만 대개 그것으로 끝납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의 감각 기관을 통해 신체의 이상 여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혼의 이상 여부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몸의 '신경'에 해당되는 혼의 감각 기관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 무언가가 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때 그것을 알려 줍니다. 양심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알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물론 선과 악을 알지도 못합니다. 짐승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대로 살아가며 이따금 훈련을 통해 특정한 행동 양식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람처럼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가 먹이가 아닌 것을 먹고 거실 카펫을 더럽힌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상기하도록 훈련시킬 수는 있습니다.

양심은 사람이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죄를 내가 알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담 스스로가 자기 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는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담, 넌 유죄야! 넌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 창세기 3장 7절 말씀대로 아담은 자기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 B. 계기판의 빨간 불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두신 ‘경고 장치’와 같습니다. 그것은 이상이 있으니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양심은 자동차의 계기판에 있는 빨간 불에 비할 수 있습니다. 이 불은 경고 장치로 차에 장착되어 있는데 운전자에게 엔진이 과열되었거나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려 줍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무언가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지혜로운 운전자라면 경고를 받아들여 무언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즉 차의 뚜껑을 열고 수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운전자는 “계속 감박거리는 저 빨간 불 때문에 귀찮아 죽겠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망치를 가져다가 그것을 박살냅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것은 신경이 죽은 손으로 뜨거운 난로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빨간 불이 감박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운전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차를 몰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운전자는 빨간 불이 자기의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양심에도 이런 ‘망치 요법’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에 걸리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양심이 가져다 준 나쁜 감정을 떨쳐 버리려고 애씁니다. 망치로 계기판을 박살 낸 운전자처럼 말입니다. 각종 약품, 마약, 알코올, 혹은 충격 요법이나 기타 여러 방법을 사용해 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그때 술 취한 상태였다면 나쁜 기분은 들지 않았을지 모르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주먹으로 빨간 불을 계속 친다면 빨간 불이 더 이상 점등되지 않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러면 자체 고장으로 더 이상 차의 고장을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엔진이 과열되든 팬벨트가 끊어지든 빨간 불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 말합니다.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딤후4:2).

여기에 나오는 영어 단어 ‘sear’는 ‘낙인을 찍다, 강한 열로 태우다, 지지다’는 뜻을 가집니다. 사람의 양심에 죄의 화인(火印)이 찍히면 그 양심은 죄를 깨닫게 하거나 판단하게 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양심이 너무 상하면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차에 이상이 있는데도 작동하지 않는 빨간 불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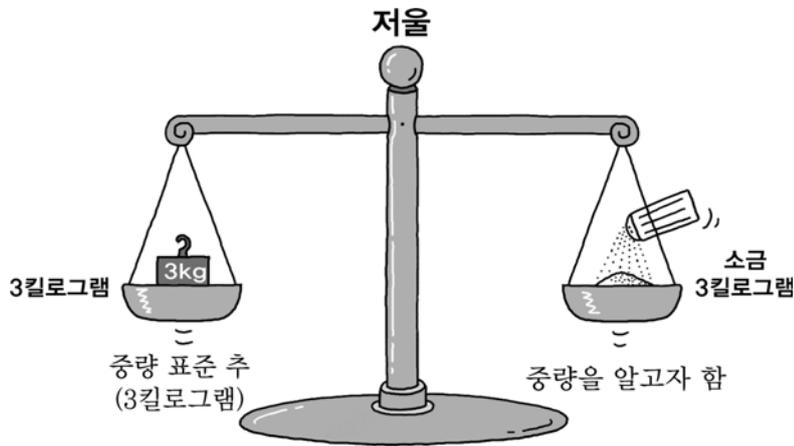
## C. 저울

양심은 또한 저울에 견줄 수 있습니다. 즉 양심은 자아의 판단을 재는 저울이라고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나 말들을 저울에 달아 보아야 하며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행동이 바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바른 답을 대기 위해선 정확한 저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저울의 정확성이 표준 추의 정확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표기된 표준 추의 무게는 3킬로그램인데 실제 무게는 2킬로그램이라고 합시다. 실제 저울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몇 킬로그램의 소금이 접시에 놓여 있었습니까? 2킬로그램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실제 소금의 무게가 2킬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소금이 3킬로그램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진짜 3킬로그램의 소금을 오른쪽에 있는 접시에 올려놓는다면 양팔 저울은 오른쪽으로 기울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추의 무게가 2킬로그램에 불과하므로 결국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양심도 이 양팔 저울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달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진리의 표준이 필요합니다. 만일 양심에 바른 정보나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제대로 무언가를 측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틀린 것을 바르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바른 것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 움직입니다. 양팔 저울은 정확한 추가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면 할수록 그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저울도 정확해 집니다.

#### D. 대개 양심은 잘 작동한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 기본 지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비추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나타나듯 사람의 양심은 이 지식에 따라 움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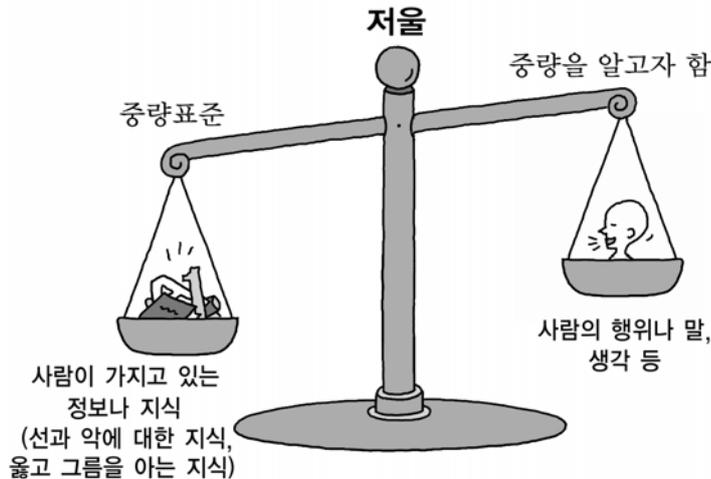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출20장)과 기타 율법들을 주셨고 이로써 그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령 그들은 살인과 도둑질, 탐욕은 나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이 로마서 2장 14-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롬2:14). 이들은 십계명이란 것은 구경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14-15절은 이방인들도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고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합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록된 율법이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행했을 때는 양심이 갈채와 격려를 보내고, 나쁜 일을 행했을 때는 양심이 정죄하고 야유를 보냅니다. 그들의 양심 즉 ‘혼의 신경’은 잘 작동합니다.

기록된 율법이 없어도 사람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1) 아비멜렉, 너그러운 왕

창세기 26장 6-16절에는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이방 왕인 그에게는 성경은커녕 십계명도 없었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말했습니다(창26:7). 후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매우 근심했습니다. 자기 사람 중 한 사람이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게 되면 그것은 곧 간음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이미 결혼한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아비멜렉은 간음이 나쁜 것임을 알았습니다(창26:10-11). 비록 그가 구원받지 못했고 십계명도 없었지만 간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작용하여 그의 양심은 이미 결혼한 여자를 취하려는 생각을 정죄하였습니다.

(2) 멜리데의 야만인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우리는 멜리데 섬에 사는 친절한 원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역시 구원받지 못했으며 그들에게는 성경도 십계명 사본도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기록된 법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도 마음에 새겨진 법이 있었습니다. 독사가 바울을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물자(행28:3) 이를 본 야만인들은 그가 죄인임에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행28:4). 원주민들은 살인이 나쁘다는 것과 살인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뱀에 물린 바울을 보고 그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행28:5-6) 선과 악에 대한 그들의 개념만은 옳았습니다.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작용하여 그들은 살인이 악하다는 것을 제대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 곧 유대인 즉 구약의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들과 이방인 즉 구약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 E. 때로는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먼저 나왔던 빨간 경고등을 생각해 봅시다. 본래 이 경고등은 잘 작동하여 사람들에게 차에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등이 틀린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가령 폭우로 전선이 젖었다고 합시다. 이 때문에 차에 이상이 없는데도 경고등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빨간 불이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를 보내므로 뚜껑을 열고 살펴보지만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이상은 차에 생긴 것이 아니라 경고등에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양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8절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 먹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고전 8:7) 좀 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그들은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했기에 음식물을 먹는 순간 양심이 그들을 정죄하고 죄책감을 갖게 했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레를 밟아 죽이거나 파리를 잡았을 경우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문제 삼지 않아도 될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이 점에서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돼지를 잡습니다(짐승을 학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회심 이전 다소의 사울(바울)의 양심은 그릇된 정보를 보내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행26:9-11). 실제로 사울은 그리스도인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요16:2와 비교). 하지만 나중에 바울은 정말로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받게 되고(행9장)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선과 악을 알며 양심도 제대로 된 신호를 보냅니다.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 자손들도 잘 작동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예리한 지각이 있었습니다.

## 2. 사람의 책임

사람은 선과 악을 알았습니다(창3:22). 지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했습니다. 즉 양심이 좋다고 인정하는 것을 하고 양심이 정죄하는 것은 피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을 보기 바랍니다. 아벨은 선을 행했고(히11:4) 가인은 악을 행했습니다(요일3:12와 비교). 그런데 잘못 행한 가인은 화를 냈고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이런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나쁜 느낌은 그의 양심이 보낸 것이며 그는 이를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수리가 필요함을 보여 주는 이상 현상이 그의 삶 속에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창4:6-7). 가인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었습니다(창4:7). 가인에게는 잘 행할 책임 즉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는 것은 그를 덮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야수처럼 죄 즉 가인의 옛 죄성이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잘 행하지 못했습니다(창4:8-9).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와 자기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 3. 사람의 실패

창세기 6장에는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독한 실패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의 사악함이 심히 컸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겨난 생각은 항상 악했습니다(창6:5). 또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했습니다(창6:11). 부패는 예외 없이 어디서나 볼 수 있었고 모든 인류에게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입니다(창6:12). 이 어두운 시대에도 몇몇 빛나는 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행했던’ 소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7절에는 이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세 사람 즉 아벨(창세기 4장), 에녹(5장), 노아(6장)가 나옵니다.

그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유다서 14-15절에는 경건한 에녹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는 ‘경건치 않은’이란 단어가 네 번이나 나옵니다. 에녹은 이처럼 불경건한 세상에 살았던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 4. 하나님의 심판

이처럼 부패된 세상을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창7:11-12, 23).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여덟 명이었습니다(벧전3:20; 벧후2:5). 하나님은 이와 같은 홍수의 심판을 다시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창9:11, 15-16).

### 5. 이 경륜은 끝났으나 양심은 지속된다

비록 양심 경륜이 막을 내렸지만 사람은 계속해서 양심 아래 살고 있습니다. 양심은 사람이 산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포함한 모든 경륜에서 사람에게서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홍수 이후의 율도 악을 멀리했습니다(욥1:1). 이러한 의무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롬12:9; 벧전3:11).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양심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안내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성경)입니다. 성경이 선과 악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말씀(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7:17). 우리의 저울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저울에다 참되고 바른 표준이 놓일 때 우리는 정확히 무게를 잴 수 있습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씀으로 조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정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바꾸어 말해 바른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울은 매우 정확해질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나오는 ‘행복한 사람’이란 양심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양심이 정죄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청신호를 보내는 일만 해야 합니다. 붉은 신호나 노란 신호를 보내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롬14:23)는 말씀은 사람이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고 믿으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당신의 양심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양심이 약하고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부가적인 지식과 정보로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라고 생각한 것이 전혀 잘못이 아님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바르다고 믿고 행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르다고 믿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 바르다고 믿는 일만 행한다!”는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당신의 양심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선과 악에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옳고 그름을 저울질할 필요가 있을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저울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이 정말 바른 것과 그른 것을 알아내기 위한 것입니까? 당신은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저울에다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른처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게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어 가도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좀 더 자라면 이런 일을 행할 때 양심이 그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라서 이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저울이 정확한 저울이 되기를 바라야 하며 더욱 주의하여 우리가 아는 대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합니다.